



원자력선진기업의 위치구축을

東亞建設産業株式會社

91년도는 유난히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충격의 한해였다. 전세계를 경악시켰던 소련의 쿠데타가 3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74년 동안의 공산통치 및 연방체제가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종주국이 몰락하였고 사회주의 각 국가들이 개방의 물결에 동승함으로 산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서방세계의 시장개방은 물론 사회주의세계의 산업참여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써 기업과 국가간의 경쟁력강화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 동아건설은 리비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등장하게 될 리비아대수로(위대한 인공강, GMR: Great Man Made River) 1단계 공사 준공식을 지난 84년 1월 착공후 7년 7개월만인 91년 8월28일 가다피 국가원수를 비롯한 30여개국의 국가원수급과 장관급인사 200명이 초청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하였고 현재 시공중인 2단계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앞으로 수행할 3, 4, 5단계공사를 수주시공하여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건설회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망의 새해 92년도에 동아건설은 국내원자력산업의 초창기의 주력업체로 그동안 고리, 월성, 울진 및 수화력발전소, 리비아 대수로공

사 등의 시공경험이 풍부한 엘리트인력 및 조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위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원자력산업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원자력안전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원가족들을 통하여 적극홍보에 나서 원자력안전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부지선정 예정지 발표후부터 밀물처럼 일고 있는 반핵운동에 대처하여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사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안전한 원자력산업이 되도록 우리 동아건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동아건설은 울진 3, 4호기 토건공사는 물론 기전공사도 적극적으로 참여, 시공함으로써 원전건설의 표준시공기술자립화를 수립(전산, 장비, 인력, 자재, 품질)하고 추가발주예정인 울진 5, 6호기를 비롯한 후속기 원전건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장사업에 적극참여하여 원자력산업 선진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동아건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